

“기본사회 완성·100년 미래도시 도약” 난임부부 맞춤형 지원 확대

전춘성 진안군수, 선거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서 민선 9기 군정 비전 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선거 이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전 군수는 11일 군청 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안형 기본사회 완성과 미래 100년 성장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준비된 변화를 군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 고원형 기본소득을 본격 추진하고, 마을 태양광과 용담댐 유휴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본사회 재단 설립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자립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버스 운영 및 안심 주택 확대, 푸드플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교육비 제로화 안전망 완성을 통한 지역 생활경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선순환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전 군수는 더불어 “대한민국 1호 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선거 이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가호수공원 추진과 세계적 수준의 K-치유 대표도시 조성, 시형 검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농업·교육·경제·관광·행정 등 전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민선 9기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평가받는 시기가 돼야 한다”며 “공직자 모두가 헌집에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 출신 이종무 장군 발자취 되새겨

장수문화원, 대마도 전적지 역사문화탐방 실시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은 최근, 장수 출신 명장 이종무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일본 대마도(쓰시마) 일원에서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조선 세종 원년인 1419년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장수가 낳은 역사적 인물의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회원 45명이 탐방에 참여했다.

대마도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한반도 연안 지역을 수시로 침략하며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의 주요 근거



지였다. 세종은 즉위 직후 이종무를 삼군도체찰사로 임명하고 전선 227척과 군사 1만 7천여 명을 동원해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다. 이른바 ‘기해동정(己亥東征)’으로 불리는 이 원정은 왜구의 침략을 억제하고 조선의 국방력을 알린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탐방단은 이종무 장군과 조선 수군

이 상륙한 것으로 알려진 아소만을 비롯해 주요 전적지를 둘러보며 당시 전투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방대에 올라 조선 수군과 왜구가 격전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조망하며 600여 년 전 역사의 현장에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탐방에서는 이종무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더불어 이즈하라 금석성 내에 위치한 덕혜옹주 기념비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 이주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숙연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장수문화원은 이번 탐방을 계기로 이종무 장군과 기해동정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연장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창립총회 개최

진안군 연장농공단지 입주기업체들이 농공단지활성화와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하며 공식적인 출범에 나섰다.

이번 총회는 연장농공단지 활성화를 목표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법인화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 간 소통과 공동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연장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앞으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공동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농공단지 환경개선 △공공사업 발굴 및 판



로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난임 진단 검사비·시술비·한방 치료비 등 지원

무주군, 난임 진단 검사비·시술비·한방 치료비 등 지원

무주군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간 총사업비 3000여만 원을 투입해 난임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 한방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난관 조영술 등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를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까지 회당 110만 원, 인공수정 등 최대 5회까지 회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방 치료 지원도 병행한다. 무주군은 한약과 침, 뜸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한방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자·난자 동결 시술비와 보관료도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율해부터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총 35건의 난임 시

술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1대1 상담과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전화와 온라인,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군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임신부 등록관리, 영양제 및 출산관리용품 지원, 임신축하금 50만 원 지급,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등 임신 지원사업에 총 57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출산 분야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 순위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유축기, 젓병소독기, 분유 셰이커, 분유 포트 등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노동 경감 도와

진안군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관내 83개 마을에서 운영 중인 공동급식은 마을당 최대 320만 원의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아, 여성 농업인들이 식사 준비 걱정 없이 영농에

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재난안전통신망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재난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에 장수군이 신청·선정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능력을 높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재난안전통신망 및 표준운영절차(SOP)의 이해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개념과 운영체계 △관련 법령 △표준운영절차(SOP) △상호 통신 절차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법 △단말기 활용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할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산골음악회 13일 개최

무주군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무주읍 소이나루 공연장(우전 시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6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산골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비올라와 악기 연주, 시 낭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22개 공연팀과 열쇠고리 만들기, 팔도시 만들기, 손수건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 팀이 참여한다.

총 231명의 회원들이 공연과 체험을 통해 생활문화예술의 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은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함께 운영돼 생활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정기분 자동차세 8억8300만원 부과

장수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592건에 대해 8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경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군은 7월 1일 예정된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일시 중단에 대비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기존보다 3일 연장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8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